

## 불교문화 이토록 인기 많았나

우수한 전통불교문화 콘텐츠가 불교를 넘어 국민 생활 곳곳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일반 복지관에서 범어강좌가,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사찰 성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미술이론 강좌가 열리는 등 불교문화가 대중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이는 우리 전통불교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진 결과로 보여진다.

지난 21일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일행복교실에 백발이 성성한 서형석(72)씨가 들어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인도 힌디어의 알파벳인 데바나가리(Devanagari) 교본을 꺼내 한 글자씩 써내려갔다. 지난 수업에 배운 글자를 복습하는 중이다. 그림에 가까운 글자를 순서대로 획을 그으며 어렵사리 한 글자를 완성

**복지관에서 범어 배우고 일반 대학·대학원에선 불교미술 이론 강좌 개설**

**지자체는 사찰음식 교육 강좌마다 수강생 만원**

한 그는 “남들이 하지 않는 귀한 학문에 입문하고 싶어서 올해 산스크리트에 수업을 선택했다”며 “아직까진 할 만하네, 앞으로가 걱정”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1시10분부터 70분간 진행되는 산스크리트어 강좌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올해 처음 개설한 교육프로그램. 영어, 일본어,

중국어와 같은 외국어 강좌야 배울 만하지만 70~80대 어르신들이 과연 범어강좌를 선택할까 했지만 예상외로 인기다.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는 동국대에서 범어 문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현덕 씨다. 현재 동국대에서 재학생들 대상으로 산스크리트어 강의를 하고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국내에 많지 않다.

그는 “처음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범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대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회수를 기억하면서 입으로 발음을 연습하는 산스크리트어 학습이 아저씨 치매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김 강사에 물었다. “글쎄요, 의학적으로 증

명된 바는 없지만 언어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르신들 건강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산사는 좋지만 막상 절에서 만나는 불교문화재가 어렵다는 일반인들을 위한 불교미술 이론 강좌도 열린다. 홍익대 문화예술평생교육원(원장 이한순) 미술이론아카데미는 불교의 가르침과 예술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절에서 만나는 불교미술’ 강의를 개설했다. 강의는 오는 3월2일부터 홍익대 대학로캠퍼스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7시에 진행된다.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을 배운 다음, 절을 방문했을 때 만나는 다리, 상문, 탑, 주불전과 전각 등 조형물을 살펴보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 배울 예정이다. 문화예술평생교육원 측은 “지난 가을 처음으로 강의를

열어 일반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도 실시하게 됐다”며 “강의를 계기로 사찰을 찾았을 때 이전과는 다른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불교문화 콘텐츠를 도입하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힐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힐링 멘토’로 존경받는 해민스님을 초청해 마음치유 특강을 열었거나 계획하고 있다.

과주시는 수년 전부터 사찰음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찰음식 요리법을 전수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2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교육을 펼친다.

하정은 **홍다영** 기자

## ‘꿈을 찾아가는 선재’

포교원, 청소년 미디어 콘텐츠 3작품 선보여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스님)이 어린이·청소년법회와 방과 후 학교 등의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 포교원이 새롭게 개발한 콘텐츠는 ‘청소년 범어용 종합 미디어 콘텐츠’ ‘꿈을 찾아가는 선재’ ‘청소년 뉴미디어 콘텐츠’ ‘반야의 야단법석’ 등이다.

‘청소년 범어용 종합미디어 콘텐츠’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법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찰예절, 연등만들기, 사경, 부처님의 생애, 교리 퀴즈 등 다양한 범어프로그램을 담았다.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뉴미디어 콘텐츠’는 육바라밀 UCC와 플래시무비 애니메이션을 통해 꿈을 찾아가는 선재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같은 콘텐츠는 청소년 포교 홈페이지 ‘꿈을 찾아가는 선재’(www.sunjae.or.kr)에서 볼 수 있다. ‘반야의 야단법석’ 이모티콘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에서 활용가능한 불교 이모티콘을 보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5월부터 정식 출시하며 사랑스러운 동자승 ‘반야’와 친구 ‘절냥이’의 좌충우돌 행복이야기를 24종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개발했다.

포교원은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청소년 미디어 콘텐츠 시연회’를 열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포교원 관계자는 “청소년법회 운영 사찰과 학교 및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단체 등에 청소년 미디어 콘텐츠 등 교보재를 계속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청소년포교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bulgyo.com



### 불교신문 신춘문에 등단

2015 불교신문 신춘문에 당선자 3명이 지난 22일 시상식 후 본지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 왼쪽부터 주간 주경스님, 사장 영배스님, 발행인 자승스님, 수상자 문서정 이화리 김희원 씨.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소설-문서정, 시-김희원, 동화-이화리 씨

불교신문 2015 신춘문에 당선 시상식 열려

### “불교문학 발전 위한 활동 기대”

불교신문의 등용문이자 한국불교문학의 산실인 ‘2015 불교신문 신춘문에’ 시상식이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열렸다.

29번째 수상자를 배출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불교신문 발행인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2015 불교신문 신춘문에’ 당선인인 문서정(단편소설), 김희원(시·시조), 이화리(동화)씨에게 당선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소설 당선자는 500만원, 동화와 시 당선자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불교신문 발행인인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수상자들의 당선문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소설 등 신문에 게재된 수상작들을 재미있게 읽었다. 앞으로도 불교문학 발전을 위한 좋은 작품을 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2016년 신춘문에 30회를 맞는 만큼 상금을 올리고 시상식 규모도 확대해 더 많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불교신문 사장 영배스님은 “내년 신춘문에는 그 동안 쌓아온 명성에 걸맞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화답했다.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불교신문 사장 영배스님은 “내년 신춘문에는 그 동안 쌓아온 명성에 걸맞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화답했다.

불교신문 신춘문에는 지난 1964년 첫 회를 시작으로 현재 29회를 맞았다. 노벨문학상 단골후보인 고은 시인을 비롯해 소설가 조정래·한승원·성석제 씨, 문학평론가 홍기삼 동국대 전 총장, 최동호 고려대 교수 등 국내 문학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심사위원을 맡고 있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2015 신춘문에는 시·시조 2000여 편을 비롯해 동화 100여 편, 단편소설 100여 편 등이 최종 응모됐다. 소설 부문에 문서정 씨의 ‘밤의 소리’, 시·시조 부문은 김희원 씨의 ‘스님의 꿈’, 동화 부문에서는 이화리 씨의 ‘대성이’가 당선됐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중단 백년대계 위한 ‘100인 대중공사’ 역사적 의미

3면

### 성지순례의 名家

## 더존투어

- 중남미, 아프리카, 발칸, 미주, 유럽, 러시아 전문
  - 세도나 명상투어 전문
  - 중국, 인도, 동남아, 부탄, 티벳, 스리랑카 직경
- 02.738.7661

전국 불교연합창단  
인도 성지 음성공양 현장 7면

성전스님의 행복해지고 싶을 때

### 삶은 용서

바간의 혜산도 파고다에서 노을을 보았습니다. 저 아득한 지평선으로 사라지는 노을. 나는 해가 지는 자리들을 연속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는 해의 자리를 따라 노을 역시 길고 낮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마침내 사라지고 노을만이 남은 순간에 사람들은 아, 하고 찬탄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해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하나 둘 랍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탑 아래서 우리를 신발을 지고 있던 미얀마 소녀가 바간의 노을을 찍은 사진을 사라고 보였습니다. 가난이 그 소녀의 보행 속에서는 왜 그리도 다정하고 따뜻하게 다가왔던 것일까. 이 나라 전체가 적당히 가난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가난을 모르는 소녀의 그 해맑은 표정 때문일까? 미얀마의 아이들은 인도의 성지에서 만났던 인도의 아이들과는 또 다른 느낌을 내게 안겨 주었습니다. 나는 발길을 이라와디 강을 내려다보는 부파야 파고다로 옮겼습니다. 이미 혜산도 파고다에서는 사라

졌을 노을이 이곳에서는 강물을 따라 제법 깊은 어둠을 안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도 흐르고 노을도 흐르니 나 역시 노을 따라 흘러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 속을 강물과 함께 흐르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흐름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대답은 의외로 쉽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마음이 마음의 정체라면 용서는 마음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너와 나를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을 나는 그 강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라와디 강에 노을이 흐릅니다.

저 노을이 흐르고 흘러 이르는 곳은 당신과 나의 가슴입니다. 당신과 나의 가슴에 노을이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따뜻한 가슴으로 미움 없는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노을이 가슴에 오기 전까지 삶은 때로 미움을 짓고 일어서는 것이었으나 노을이 가슴을 채운 뒤에는 삶은 용서를 짓고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을 건너고 나니 비로소 삶은 용서를 던지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남해 염불암

## 모집안내 한국불교연구원 열린유마선원 강직 및 수행결사

한국불교연구원은 보살되는 이치와 실천이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되기를 서원하여, 수행의 교리를 익히고 실천수행의 체계를 체득하기 위하여 불교연구원은 교리연구의 전당으로, 열린유마선원은 실천수행의 도량으로, 전국 구도회는 보살행의 실천장소로 운영한다. 부처님답게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계정에 삼학으로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가 거듭나게 한다. 올바른 신명생활을 위해 실천하는 윤리인 행복론, 정학을 바르게 이해하여 실천하는 마음의 움직임인 유식, 생활의 지혜로 작용하는 중관으로 바른 보살도를 실천하게 한다.

### ◆ 열린유마선원 기초·전문과정 모집 (www.newbm.co.kr)

- 기간 : 총 3년 (기초과정 2년, 전문과정 1년)
- 과 목 : 불교행복론, 유식, 중관, 어록 등 실천수행에 관한 기초 교리
- 시 간 : 오후반 (14:00~15:30, 90분) 저녁반 (19:00~20:30, 90분)
- 모 집 : 년 1회, 오후·저녁반 각 30명 (수강료 : 50만원, 분납 가능)
- 모집기간 : 2015년 1월 26일~2월 27일
- 접 수 처 : 한국불교연구원 불교연구원 (02-762-5624)  
국민은행 474537-01-002428 (사)한국불교연구원(유마정사)
- 일 정

1학기		2학기	
3.4.5.6월	7월	9.10.11.12월	1월
불교 행복론I	실참 (3박4일)	불교 행복론II	단기출가 (3박4일)
근본불교		중관불교	1년차:십선계 2년차:보살계
부파불교		유식불교	3년차:대승출가보살인증

- (특징) - 실천수행에 필요한 교리를 아주 쉽고 편안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계정에 삼학에서 출발하는 입문·교학·경론·실천의 4단계 과정으로 구성하고, 각 단계마다 전문인의 점검과정이 있다.  
- 삼귀의, 십선계, 보살계 등의 수계는 전통방식으로 한다.  
- 재가보살의 정신을 함양하는 단기출가와 대승출가보살계 수계를 두고 있다.  
- 모든 강의의 내용은 한국불교를 이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열린유마선원 수행결사 모집 (www.newbm.co.kr)

- 재가자 결사 : 觀佛결사, 淨業결사  
자 격 : 재가자 (누구나 가능)  
모집정원 : 각 20명 / 참가비 : 30만원  
모집기간 : 차후 공고 (7월 예정)  
결 사 : 2015년 8월 14일부터 (예정)
- 출가자 결사 : 觀經결사  
자 격 : 비구니  
모집정원 : 각 10명(산철) / 참가비 : 없음  
모집기간 : 차후공고 (9월 예정)  
결 사 : 2015년 10월 12일부터 (예정)
- 접 수 처 : 한국불교연구원 열린유마선원 총무소 (031-761-6169)  
국민은행 474537-01-002428 (사)한국불교연구원(유마정사)
- 일 정

연도	2014년										2015년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음력	동안거					하안거					동안거					하안거										
	10.15 (결제)	→안거중→				1.15 (해제)	(산철)				4.15 (결제)	→안거중→				7.15 (해제)	(산철)				10.15 (결제)					
양력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관불													정업												
	관경										관경															

- (특징) - 재가자 수행결사는 4박 5일간 결사의 내용에 따라 진행한다.  
- 출가자 수행결사는 14박 15일간 산철에 행하며, 경론 강독을 집중으로 한다.  
- 결사의 내용, 순서, 단계 등은 경전과 문헌에 근거한다.  
- 열린유마선원의 청구에 따라 수행한다.